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10 2025
통권 618호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입니다. 추석 명절 나눔과 기쁨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가을 달콤한 단감 속에 전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10월
목회력

04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10 금	•연합권찰모임, 문화선교축제
12 주일	•사랑부·고등부 대학부 베드로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선교주일, 학원선교대회, 제직회	19 주일	•아동부찬양제 리틀스타
15 수 ~ 17 금	•선교부홍회	22 수	•선교바자회
20 월 ~ 22 수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24 금 ~ 29 수	•제자-소그룹주간
24 금	•선교바자회, 심방준비회	26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제자-소그룹의 날, 사회봉사주일
31 금	•전도 특별금요기도회		

만남

2025년 10월호
통권 618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세요 김운성

특집 청년이여! 교회의 소망으로 일어서라

- 05 3040과 함께 세워가는 영락의 미래 오병훈
- 06 3040자치회가 동행합니다 김경마·이윤범·김의성·강광천·장부교·김차진
- 10 영락 2040이 보는 우리 교회 이미지 선교부
- 14 고양·파주교구의 여름·복음 들고 몽골로 백세명
- 16 영락교회에서 찾은 '나의 반쪽' 김승태·김민지
- 18 배우자를 찾는 여정, 영락 상담부와 시작하세요 상담부

특별기고

- 19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면벌부' 박지운
- 22 보혈의 사랑, 중독의 멍에를 끊다 이명진

만남 그리고 사람들

- 24 고통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정인기
- 26 공동체의 기도가 저를 일으켰어요 홍정원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 28 송실대생 한경직의 애국 계몽 운동 박명수
- 31 디지털역사관 개관 김경옥
- 32 '남산 뷰' 코이노니아 공간에서 교제하세요 김천경
- 34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 감동의 선율 인 미

다음세대 / 청년광장

- 36 원팀, 원골… 동행과 섬김 배운 축구캠프 양현재
- 38 두근두근 첫 하기선교 '전도의 은혜' 경험 안다솔
- 40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김기태

땅끝까지 이르러

- 42 2025 선교대회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선교부
- 44 스티그마, 온몸으로 찬양하는 기쁨 이지혜
- 46 일상에 스며드는 전도, 도전받고 격려되는 삶 윤극명

영락 글로벌

- 48 태국 치앙마이에서 3남 인터넷 해외선교 지상우
- 50 미얀마어예배, 지친 영혼들 소망과 사랑의 피난처 킵

영락의 울타리

- 52 제 순교지는 다음세대입니다 정근우
- 54 힐링 절실했던 우리 가정, 주님이 회복의 은혜 주셨어요 변주은
- 56 소그룹 리더십 '사람 뉚는 어부'의 필수조건 김영건

교회소식

- 58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외
- 60 빈센트 반 고흐의 '낮잠'
- 61 새아기·새가정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세요

김운성 담임목사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 이러라 (사도행전 16: 2~3)

지금도 훌륭한 스승 없이 뛰어난 제자가 없습니다만, 중세 유럽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뛰어난 학자나 기술자가 되려면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그러했는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匠人)이 견습 제자를 직접 가르치며 세밀하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것을 도제 제도라고 합니다. 도제는 스승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배워야 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스승을 이은 사람으로 인정 받으려면 최소 7년 이상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워야 했다고 합니다. 단지 학문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습관까지도 배웠습니다. 뛰어난 학자나 기술자가 되는 첫 단계는 뛰어난 스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도제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거나 약화된 배경에는 근대 교육의 등장이 있습니다. 한 스승이 한 제자를 수년 동안 가르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스승의 집이 아닌 교실에서,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이 함께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수억 명도 함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느슨해졌거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제 제도는 지금도 정말 소중합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지간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도제 관계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교육한

교실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주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서는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먼저 오셔서 수풀 속에 친히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가 나왔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준비하시는 은혜,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모리아산 이후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스승으로서 이삭에게 베푼 신앙 훈련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길 거절했다면,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간이었지만, 신앙에 있어서 도제 관계였다고 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영적 도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루스드라에서 소중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디모데입니다. 아마도 1차 전도여행의 결과로 얻은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도제 관계

최고의 스승과 가장 잘 배운 제자

영락 80년… 믿음의 선배들은 바울 돼

젊은 세대 잘 가르쳐 디모데로 키워야

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디모데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오랫동안 믿음과 복음 전도를 훈련했습니다. 영적 도제 수업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매우 탁월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게 되었을 때, 후사를 부탁할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최고의 스승인 바울에게서 가장 잘 배운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혼자 가지 말고,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영락교회는 80년 동안 매우 탁월한 복음 전도와 선교,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락교회에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뛰어난 믿음의 선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추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디모데를 많이 키워야 합니다. 선배들은 바울이 되어야 하고, 후배들은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이를 아껴야 합니다. 3040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는 선배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배워야 합니다. 올해 선교 주간에도 영적 도제 수업이 많이 이뤄져서 뛰어난 믿음의 후배들이 많이 세워지고, 배움을 통해 80주년 이후를 향해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만날**

청년이여, 교회의 소망으로 일어서서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넨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청년세대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청년은 단순히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교회의 오늘을 떠받치고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자리는 때때로 작게만 여겨 집니다. 현실 속 청년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혼들리는 관계와 신앙의 고민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며, 기도로 동행할 때 청년은 교회의 소망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3040과 함께 세워가는 영락의 미래

3040맞춤형 신앙 로드맵 만든 까닭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는 3040세대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 로드맵을 마련해왔습니다. 청년회, 청년선교회, 부부청년회, 부모청년회, 부부선교회, 4남선교회·4여전도회로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미혼에서 결혼·출산·육아의 생애 주기에 맞추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돋는 신앙 로드맵입니다.

3040세대는 영락교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어 가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청년회를 졸업하거나 새로 교회에 온 3040세대 중 많은 청년이 교구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단절을 회복하고 세대를 잇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3040자치회 눈부신 회복과 부흥

김운성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3040세대 여러



자치회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청년회는 구조를 개편하여 자율적 리더십과 재정 자립을 강화했고, 부부청년회는 독립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결혼·출산 가정들이 서로 지지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구 내 3040세대 현황을 조사하고 목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40세대 각 자치회와 더불어 18개 교구 내에서 3040세대 신앙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으로 이어질 미래를 기대합니다.

청년→부모→다음세대… 영적 역동성 기대

앞으로 영락교회는 청년에서 부모, 그리고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 로드맵을 통하여 영적 공동체의 역동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더라도 교회 곳곳에서 3040세대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3040세대사역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락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3040세대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여 세대를 잇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영락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날**



오병훈 목사
3040세대 전담

3040자치회가 섬김과 교제 동행합니다

천국 닮은 공동체 소망 우리는 가족

모임에 참여한 부부선교회원이 “천국에서 하는 모임이 이런 게 아닐까요?”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선교회 회원들이 부부가 되어 부부선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천국의 삶을 나누는 청년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회 하기선교봉사에 참여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선교회와 함께한 흥안교회 목사님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하기선교봉사를 계기로 청년선교 회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형제애와 자매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회 하기선교봉사에 동참하여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에 해외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부부선교회 몇 가정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성탄 시즌에 선교지에서 만날 형제·자매들과 누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천국 같은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김경미 집사_청년선교회 회장

청년선교회



영락교회 3040세대 신앙 로드맵

3040세대
사역 조직



청년회

미혼 20대 후반~30대 중반

4남선교회·
4여전도회

청년선교회

미혼 30대 중반 이후

부부선교회

부부청년회

출산 전 신혼부부

부모청년회



42세 이하 남녀, 선교사역 중심

취학 자녀 양육 부부

미취학 자녀 양육 부부

부부청년회

신혼부부부터 젊은 부모들 행복 동행

부부청년회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청년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청년회 예배 후 50주년기념관 6층 604호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며, 2024년 '신혼부부 부서'로 시작해 올해 창립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약 30여 쌍의 부부가 함께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행'을 주제로 남한산성 영락수련원에서 여성수련회를 했습니다. 김운성 목사님과 함께한 말씀집회, 부부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짹지어주신 배우자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겠다는 귀한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이윤범 집사_부부청년회 지기



부부선교회

중학생 이하 자녀들과 예배 드리며 은혜 나눔

부부선교회는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며, 또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녀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며 조별 나눔 시간에는 부모들이 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부부선교회에서는 자녀 양육 등 힘든 일상으로 인해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려서 부터 믿음의 동역자(친구, 형제·자매)를 만나 교회 안에서 신앙공동체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해외선교사 정기 후원, 선교사 사역지의 어려운 가정 1:1 후원, 국내 모자원 후원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 부부선교회는 3040세대 신앙 로드맵(청년회 ⇒ 청년선교회 ⇒ 부부청년회 ⇒ 부부선교회)마지막 단계로서, 향후 새롭게 합류할 가정들이 잘 정착하여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신앙공동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집사_부부선교회 회장

4남선교회

3040남성들끼리 솔직한 교제

4남선교회는 3040 남성 성도들의 공동체로, 부부 단위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끼리 솔직하게 삶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매달 1:3주 주일 오후 2시, 엔젤동에서 성경공부와 나눔으로 함께합니다.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4남의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평범한 아저씨들이며, 선교 지원·연합기도회·교회 행사 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히 섬깁니다. 자체 사역은 크지 않지만, 많은 회원이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꾸준히 잔잔하게 세상 속에 작은 빛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쉴만한 물가 같은 따뜻한 공동체로, 선교와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강광천 집사_4남선교회

4여전도회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미래 준비

4여전도회는 만 42세 이하의 여성 교인들로 구성된 젊은 여전도회입니다. 현재 28대 중앙회 임원진, 18개 교구 지회장, 10개 부서 30명의 부·차장을 포함해 총 330여 명의 회원이 말씀과 기도, 교제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이루어 다양한 교회 봉사와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 사역으로는 선교사 자녀를 후원하고 지원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돋는 MK(선교사자녀)사역과 학원선교를 통해 다음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으로는 매달 둘째 주일 지난 후 화요일에 모이는 '중앙월례 회', 셋째 주일 오전에 모이는 '주일 모임', 각 지역에서 모이는 '지회별 월례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4남선교회와 함께 매달 첫째 주 토요일 3시 30분, 기념관 2층 유치부실에서 목사님이나 크리스천 강사를 모시고 '함께기도회'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특별새벽기도회 특송과 애찬 나눔, 새벽기도회 후 플로깅(교회 인근 청소), 영락꿈터 볼풀장 청소, 노방전도, 어린이 복음 프로그램, 바자 등 다양한 활동과 섬김을 통해 영락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부교 집사_4여전도회장

고구내
3040

세대 간 벽 허물고 신앙의 다리 놓다

고양·파주교구는 3040세대와 장년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융합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는 은퇴제직 및 1남·1여 아유회 때 차량 핍업, 장소 안내, 음료 제공 등 실질적인 섬김에 참여하며 따뜻한 교감을 나눕니다. 교구친교의 날에는 악기와 싱어로 찬양팀을 구성해 찬양으로 섬기고, 윗세대 중심의 교구찬양대에도 함께 참여하여 준비 모임과 찬양을 통해 세대 간의 연결을 이룹니다. 2024년 보령선교, 2025년 몽골선교에서는 3040세대가 주축이 되어 선교를 준비했으며, 윗세대와 협력하며 함께 사역을 감당했고, 이후 정기모임에서 선교보고를 통해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교회와 교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차진 집사_4남선교회 16지회장



영락 2040이 보는 우리 교회 이미지 ‘거룩하고 모범적… 세대 간 소통은 과제’

청년세대 설문… 8개 항목 이미지 평균 75.3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영락교회에 대해 가진 인식은 ‘거룩한’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성령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이미지가 많았으며,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세대를 위한’ 이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 간 소통이 잘되는’ 교회 이미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선교부가 지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교회 20~40대 청년(대학부 제외) 351명을 대상으로 한, 영락교회 청년세대의 교회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청년세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만족도가 낮은 항목도 뚜렷하게 드러나,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부

1. 교회 이미지와 교회 옮기기에 대한 생각

응답자들은 교회 이미지에 대한 8가지 항목에 대해 평균 75.3점(100점 만점)을 줬다. 가장 강한 이미지는 83.6점을 기록한 ‘거룩한’ 교회 이미지. 다음으로는 ‘모범이 되는’(83.5점) ‘자랑스러운’(83점) ‘성령충만한’(79.9점) ‘사랑이 넘치는’(76.6점) 교회 이미지가 평균점을 넘었다. 평균 이하 중 가장 낮은 58.3점을 기록한 것은 ‘세대 간 소통이 잘되는’ 교회 이미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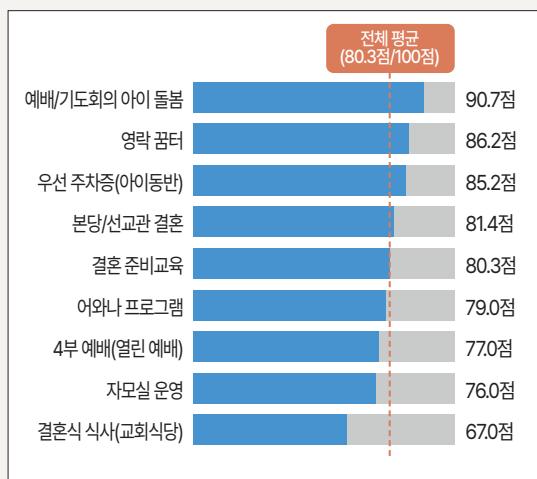
하지만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교회를 옮길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답은 교회 출석기간이 길수록, 또 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회를 옮길까 고려한 이유 중 첫 번째는 ‘교회의 보수적 분위기 때문’(32.1%)이었으며, ‘집과 거리가 멀어서’(23.1%),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특성별로 볼 때 중대한 합의가 나타

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회 출석 기간이 길수록 교회 긍정 이미지에 대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봉사하고 있는 응답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다음세대를 위한’(72.9점) ‘청년세대를 위한’(64.4점) ‘세대 간 소통이 잘 되는’(58.3점) 교회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85% 이상이 청년세대 자치회 소속이며, 과반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세대 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는 그저 지나칠 가벼운 의견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세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우리 교회가 청년세대를 위해서 마련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80.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예배·기도회의 아이 돌봄’(90.7점)이었고 ‘영락꿈터’(86.2점), ‘아이동반 우선주차증’(85.2점)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 ‘본



거룩·자랑·모범 83점대… 소통 잘 된다 58.3점

최근 1년 새 교회 옮길 생각 20% 그쳤지만
출석 기간 길고 봉사 안 한 경우에선 높아

청년·다음세대 공간 만족도 59.2점 불과

교회식당 결혼식사 품질 개선 시급 최다
영유아·초중고 지원 휴식공간 평균 미달

청년세대는 징검다리 아닌 교회의 핵심

“오직 예수” 기독교 본질은 지켜가되
세대 간 소통하며 건강한 성장 해나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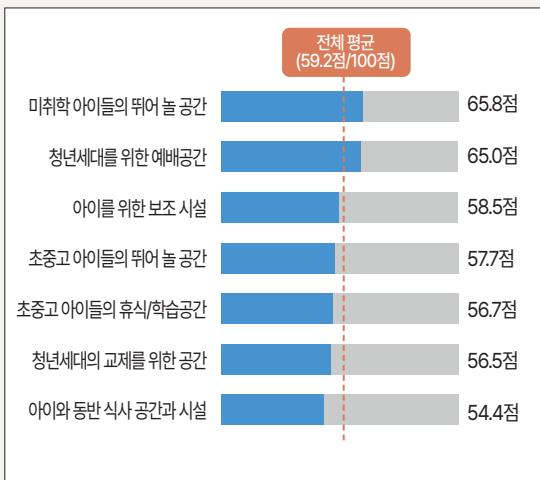
당·선교관 결혼’(81.4점) ‘결혼 준비교육’(80.3점)은 겨우 평균점수를 지켰다.

만족도가 심각하게 낮은 것은 ‘결혼식 식사(교회식당)’(67점)로, 현재 공사 중인 식당 리모델링 결과가 주목된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4부 예배(열린 예배)’(77점)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으며, ‘자모실 운영’(76점)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 청년 및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교회 안 청년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만족도는 평균 59.2점으로 매우 낮았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50주년 기념관 7층에 지난해 새로 만든 영락꿈터와 같은 미취학 어린이 공간이나 청년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 외에는 모두 평균 점수 이하로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는 점이다. 청년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이나 개선할 것으로 청년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교회식당 결혼식 식사 품질 개선’(41명)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영유아 지원(‘영유아 식기 지원’ ‘영유아 동반석’ ‘수유실’ ‘주차’ 등)(각 32명)으로 나타났다.



4. 청년세대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구 분	전체	연령별	
		20대·30대	40대
인 원	351명	174명	177명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청년세대 모임의 활성화	33.6%	33.9%	33.3%
다양한 시간대와 방식의 신앙 교육 프로그램 마련	16.8%	9.8%	23.7%
청년세대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	14.2%	16.7%	11.9%
청년세대를 위한 충분한 예배 공간 마련	13.4%	12.6%	14.1%
청년세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여	12.5%	16.1%	9.0%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사 소통의 장을 마련	9.4%	10.9%	7.9%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청년세대 모임의 활성화’가 가장 높았다. 이 외, ‘다양한 시간대와 방식의 신앙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청년세대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 등의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

8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사명을 새롭게 다져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중심에는 청년세대, 즉 현재의 3040세대가 있다. 이들은 단지 다음세대를 위한 정겹다리가 아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갈 핵심적인 구성원이며, 교회의 미래다.

이를 위해 교회는 미래를 받아들이고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청년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오직 예수’라는 기독교의 본질은 함께 지키면서 변화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 건강한 성장을 해나가는 영락교회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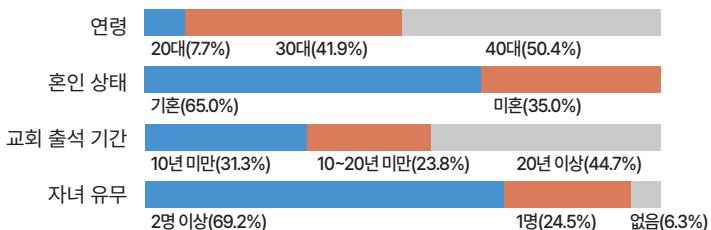


『영락교회 청년세대 인식 설문조사』 개요

주관부서	선교부
조사개요	영락교회『청년세대』의 영락교회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	영락교회 20대~40대 청년세대 (대학부 제외)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구글 활용)
조사기간	2025.6.8(주일)~6.29(주일) 4주간
조사응답	총 응답 : 3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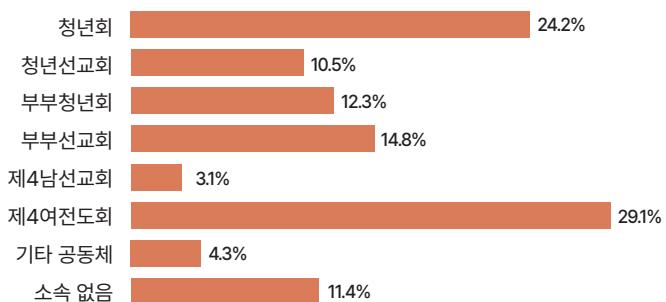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연령 및 혼인 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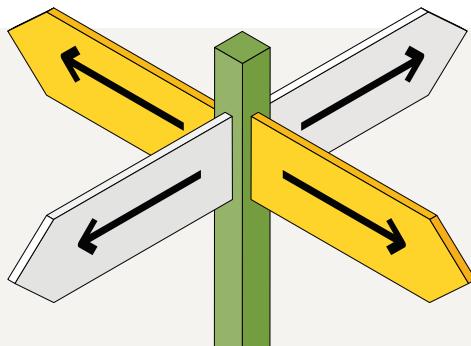


*응답자가 소속된 자치회 현황

응답자가 속한 자치회는 제4여전도회가 가장 높고, 청년회, 부부선교회, 부부청년회, 청년선교회 순으로, 응답자의 약 85%는 청년세대 자치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양·파주교구의 여름 복음 들고 몽골로~



교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서다

대형 교회에서는 익명으로 숨어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몽골 단기선교를 통해 교구라는 작은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터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2024년, 탁현수 목사님을 통해 몽골 선교 비전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불씨가 심어졌습니다. 재정과 일정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회의 승인과 성도들의 기도로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는 부서가 아닌, 각자의 삶 한가운데 있는 교구 식구들이 함께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5월부터는 직장과 가정의 바쁜 일상에도 매일 오후 1시에 같은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교구는 단순한 친교의 장을 넘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여정… 성령의 임재를 보다

아이들 11명을 포함한 33명이 함께 울란바토르에 도착



조이센터 아이들과 함께한 성경학교

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첫 일정은 틀어졌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착예배 후 숙소에서 경험한 해프닝조차 은혜의 추억으로 바꾸었습니다. 게르 캠프에서 만난 조이센터 아이들은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고, 함께 활동하며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예배 때 세죽식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복음을 나누었으며,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가 캠프파이어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글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덕에 올라 몽골을 위한 땅밟기기도를 드렸고, 이어서 이루어진 복음 제시는 이번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진지하



백세명 집사
고양·파주교구

게 듣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또한, 조이센터에서 청소와 페인트칠을 할 때는 아이들의 현실을 마주했지만, 학용품과 교복을 전해주고 함께 식사하며 나눈 웃음은 오래 남을 은혜였습니다.

일정 내내 예비해두신 하나님의 손길

이번 사역을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첫날 늦은 저녁을 먹었던 식당은 을지바트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 예배당 없이 예배드리던 곳이었고, 머물렀던 캠프장은 과거 영락교회 부목사님이 금호교회로 부임하신 후에 세우신 장소였습니다. 또, 을지바트 목사님 자신이 바로 이런 선교사역의 열매였고, 동행하신 구역장님 역시 과거 어린이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 세워지신 분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대와 공간을 넘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선교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어가시는 구원의 흐름입니다.

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지구상에 단순히 존재하는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북한 등 복음이 막힌 땅들을 향한 북방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발걸음을 사용해주신 하나님의 감사

무엇보다 이번 사역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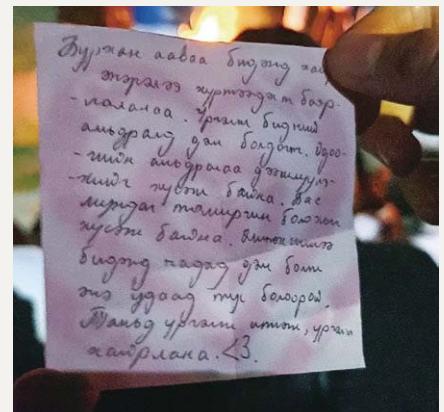
첫째, 교구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둘째, 선교의 본질은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에 충실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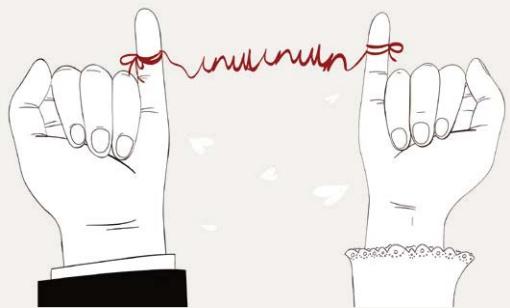


몽골 땅밟기 기도 중인 교구 식구들



캠프파이어 때 작성한 처음 예수님을 알게된 아이의 메모

영락교회에서 찾은 ‘나의 반쪽’ 하나님 예비하신 사랑 덕분



그녀가 점점 특별하게 보였다

영락교회 마당을 걷다 보면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손주들이랑 함께 웃으며 걷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60대 이후 언젠가 손주 손을 잡고 이 마당을 걸어보고 싶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대를 이어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참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마음은 자주 흔들렸고, 열심히 해도 늘 모자라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자책하며 무너질 때도 잦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으로 불들어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 눈에 한 사람을 보 이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자매였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뜨거워졌습니다. 2022년 하기선교를 함께 다녀오며 가까워졌지만, 교회 안이다 보니 제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하나님은 점점 그녀를 다르게 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녀일까?’ 수없이 물었지만, 기도하며 내려놓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평일 저녁에 따로 만나 식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했고, 그녀는 신중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잡아 준 건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시 손을 잡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반지 안에도 그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결혼까지 전 과정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

결혼 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건강 문제로 양가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채워주셨고, 그 과정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고백했던 순간이 아직도 마음에 생생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다툼도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항상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아침 출근 전 함께 포옹과 입 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선물임을 느끼곤 했습니다.

등불처럼 빛나는 믿음의 가정 세워갑니다

‘강산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요. 작은 집이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등불처럼 빛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부족한 저를 불들이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예비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날**

김승태 집사 _ 청년부 주는나무 리더, 유년부 교사
김민지 성도 _ 청년부 꿈꾸는땅 리더



당신의 배우자를 찾는 여정 영락 상담부와 시작하세요

상담부의 결혼매칭사역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영락교회 상담부는 오랜 세월 전화상담과 함께 결혼매칭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역을 통해 실제로 많은 커플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실을 보았으며, 지금도 교인들의 소중한 요청에 맞추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돋는 통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절차 현재 결혼매칭사역은 영락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전도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원하는 조건과 신앙적 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조건이 맞는 분을 찾아 소개해 드립니다.

신중하면서 간단한 소개 과정 소개 절차는 신중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먼저 양쪽에 소개 의사를 묻고, 모두 수락할 경우 연락처를 공유합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하여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신청자는 최

대 5회까지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며, 적합한 대상자가 있다면 추가로 연결해드리기도 합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연결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의 신청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상담부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연결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동반자 이 사역은 단순한 만남의 주선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미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배우자를 찾다가 새로운 통로를 찾는 분도 많습니다. 영락교회 상담부의 매칭사역은 이러한 분들에게 신앙 안에서 귀한 만남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찾으시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은 기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부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만남**

상담부 : 봉사관 303호, 문의 전화 2280-0171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면벌부’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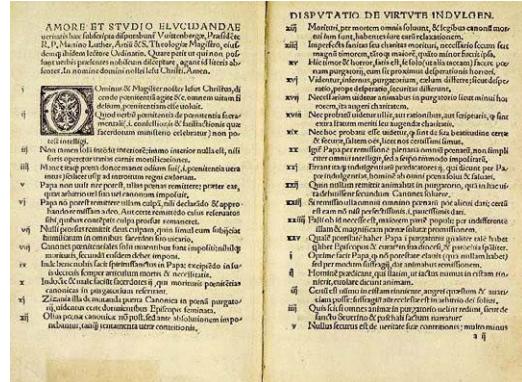
1517년 10월 31일, 겸은 사제복을 입은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사는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결국 유럽을 흔들고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은 위대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기억합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교황과 가톨릭교회를 부인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가톨릭교회를 무너트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로마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벌어지던 면죄부 판매의 남용이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적 토론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95개 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모든 신학을 담은 선언문은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중세 교회 신학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면죄부에



박지운 목사
중구·용산교구
홍보출판부



95개 조 반박문

대한 신학적 오류를 제기한 것입니다. 루터의 핵심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죄의 용서와 회개는 결코 어떠한 외형적 행위, 즉 돈이나 선행 등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진정한 신앙과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95개 조 반박문은 근본적으로 죄 사함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글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불잡고 참된 복음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면죄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곧 교황권과 교회의 권위라는 더 깊은 논쟁으로 번졌고, 그 작은 불씨는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면죄부, 본래 의미와 성경적 비판

그렇다면, 왜 로마 가톨릭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정말 ‘돈으로 구원을 산다’라는 생각이 공식 교리였을까요? 성경판 유전무죄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사실 면죄부의 본래 신학적 의미는 ‘죄 자체’를 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리는 회개와 고해성사

를 통해 죄가 용서되었더라도, 그 죄에 따른 형벌(잠벌, 暫罰)은 남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는 교회의 권위를 통해 이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준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라 이를 짓더라도 이러한 공로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요. 성경은 ‘형벌’을 줄이기 위해 인간이 어떤 행위를 더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른 모든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마서 8:1) 형벌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요구하는 교리 자체가 성경적 복음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죄부 제도는 애초에 신학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를 적극 장려했고, 독일 지역에서는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자신의 빚



영화 <루터>에서 95개 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다

을 갚기 위해 수익의 절반을 사육을 위해 챙기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면죄부 설교자 요한 테첼은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선동으로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동전이 현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솟아 오른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을 내면 죄가 사라진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고, 복음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죄 탕감 교회가 해준다는 면벌부 여전히 존속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톨릭교회가 여전히 ‘면벌부’라는 이름으로 같은 신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름만 달라졌을 뿐, 죄로 인한 형벌을 경감한다는 기본 논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책이 용서되었어도 잠벌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탕감받기 위해 신자는 교회가 정한 선행·기도·보속을 행해야 하고 교회는 주어진 권위로 면벌을 베풀 수 있으며, 이는 연옥의 영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리서 1471~1479). 500년 전 루터가 문제를 제기했던 바로 그 신학적 전제와 구조가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이 여전히 교리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사상을 ‘다른 복음’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보다 공로 앞세우는 인간의 계산적 신앙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가톨릭의 신학적 오류’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올바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말씀(Sola Scriptura)

르다며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현금이나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지’라는 계산이 우리 마음 한편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은혜보다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는, 인간중심의 신앙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면죄부를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가 거대한 중세 교회에 던졌던 물음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말씀(Sola Scriptura)!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외침입니다. 교회는 언제든 형식과 제도에 안주할 수 있고, 신앙은 쉽게 공로주의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제도의 개혁 이전에 ‘마음의 개혁’입니다.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불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500년 전 루터가 붙잡았던 불씨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남**

보혈의 사랑, 중독의 멍에를 끊다



우리는 모두 죄 중독자

2025년 7월 26일 여러 가지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성,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벗어나 회복했거나 회복하고 있는 사람을 돋기 위한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창립총회가 있었다(사진). 중독회복자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중독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던 이들의 지속적인 회복과 재활을 돋는 기관이 필요했다. 교회가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이들을 돋기 위해 나선 것이다.

중독이란 어떤 행위나 물질에 종속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벗어나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중독에서 벗어났어도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 어쩌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 역시 죄의 중독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진 성도
안양·수원교구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운영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예배 가운데 임하는 회복의 은혜

중독자의 대부분은 중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얼굴을 보면 매우 어둡다. 어떤 이는 사납고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독의 멍에가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독이 주는 쾌락을 넘어서는 기쁨과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여러 기관과 회복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해도,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중독자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손상과 무너져버린 영혼의 상처는 이성적 지식과 정보 제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중독의 쾌락을 넘어서는 기쁨과 지속적인 회복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독의 문제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할 때, 죄를 이길 믿음의 용기가 생겨난다. '그 누구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신뢰할 때,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된다.

중독회복자들 역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중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생겼다고 고백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기쁨으로 중독의 멍에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을 두드리며 역사하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성령은 예배에 임재하신다. 중독회복자 중 많은 이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독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으며,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들 중독회복자의 얼굴을 보면 과거와 달리 밝은 얼굴로 변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할까?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논리적인 말이나 성경적 기준을 먼저 들이대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

라지 않았다. 그냥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탕자를 안심시키고 회복시켰다. 중독에 빠진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될 때 안심하고 회복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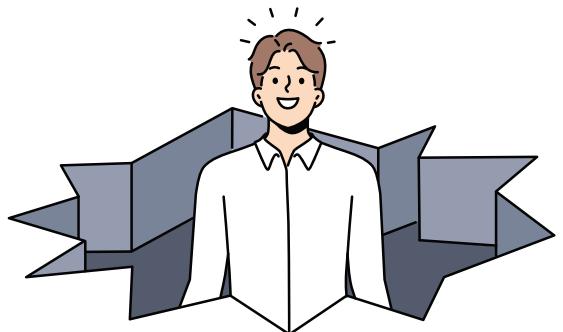
봄날 눈 녹이듯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 한다. 햇빛이 소리 없이 방에 비칠 때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잔잔히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한다. 그들이 중독의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성실하게 대하면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화의 과정과 같다. 일단 중독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강력한 중독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회복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후 공급되는 진액을 먹고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중독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이 지쳐 있을 때 찾아가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만날**

고통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록이다’(시편 31:9-10)



이는 다윗이 고통 중에 주님께 한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절망의 순간

잊히지 않는 날짜, 2019년 12월 6일. 직장에서 저의 업무 실수로 고객으로부터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깊은 수렁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절망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최근 시간을 한

참 넘겨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저의 실수로 왜 이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불과 3일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져 서 있는 것조차 힘들더니, 급기야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건너편 건물 ‘○○정신과’가 눈에 들어왔고, 즉시 건물을 내려가 병원에서 심리 상담과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고서야 겨우 절망의 자락에서 한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말없이 “기도하자”며 옆을 지켜준 아내, 상황을 알고 죽을 사 들고 찾아와 함께 기도해준 교우들이 고마웠습니다.



정인기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선교부 농어촌팀장
법무법인(유한) 태승 변호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기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뜻이 있으시면 보여주십시오. 만약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량은 회사에 두고 아침저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기도했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CCM을 들으면서 잠잠히 지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놀라운 은혜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수령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돋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이게 하셨고, 고객에게 궁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기까지 6개월 동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고객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무사히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뜻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

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밀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시편 31:21~24)고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하셨으며, 이후 더 많은 주의 은혜로 저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3남선교회 회장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해외선교사업을 감당케 하시고, 안수집사 직분을 허락하셨으며, 지금은 선교부 농어촌팀장으로 농어촌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연단과 인내로

지금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의 사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2019년 12월 6일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셨던 연단과 인내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체험한 주님께서 육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임재하셔서, 위로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공동체의 기도가 저를 일으켰어요

백신 접종 부작용… 생사 갈림길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영락교회와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 시간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백신 접종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해 6월, 고등부 예배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중환자실 침대 위였습니다. 두 달 반 동안 의식 없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홍경원 성도
성동·광진교구
고등부 교사

긴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했고, 온몸의 근육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불들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매일 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 길에도 끝이 있을 거야’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좁은 침대 위 잠에 들지도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채 그렇게 한 달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공동체 기도 알고부터 희망의 불씨 피어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영락교회에서 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매일 기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싸움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공동체의 기도를 알게 된 날부터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힘을 되찾아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몸과 마음 모두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긴 후, 매일 재활치료에 힘쓰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기도해주신 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원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고등부로 돌아와 봉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 살겠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힘든 날도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

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 늦게 감사를 전해 죄송합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 (Loveflow)는 농촌 봉사활동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 가족도 함께 참여해 미용 봉사를 통해 작게나마 섬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큰 감격이었고,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몸과 환경 속에서도 저를 불드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등부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섬김의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만날**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한경직 목사는 1921년부터 4년 동안 숭실대학(1925년부터는 숭실전문학교로 개명)에서 공부했다. 3·1운동 이후 한국 사회에는 민족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 민족운동의 중심에는 학생운동이 있었다. 당시 신문들은 이런 학생들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번 호에는 1920년대 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신문에 기재된 한경직의 숭실대학 시절을 소개한다.

청년 응변가로, 음악전도단 연사로… 숭실대생 한경직의 애국 계몽 운동

숭실대학 시절 한경직의 고향을 위한 애국 운동

한경직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민족을 위한 계몽운동에도 열심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조선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강한 역사의식이 있었고, 이들은 지역별로 학우회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스무살의 한경직은 1922년 8월 17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인 평안남도 평원군 읍내 교회당에서 수백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평원학우회를 창립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직은 ‘자직(自職)을 자진(自盡)하라’는 제목으로 연설했고, 지육부장에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22년 8월 27일).

평원학우회는 1923년 여름 순회 강연단을 조직하고 국내 각 지역을 돌며 계몽활동했다. 강연단은 2대로 나뉘었는데, 한경직이 맡은 1대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 까지 평원군 석암 지역부터 매일 한 곳씩 순회강연했다

(동아일보 1923년 7월 24일). 한경직은 자신의 자서전 『나의 감사』에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한경직은 당시 평남 일대에서 유명한 연설가였다. 평남 강동군 만달면 파릉리 동명학술강습회는 1921년에 강습소를 시작하여 근근이 유지했지만, 1924년에는 폐회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경직을 연사로 청하여 대대적으로 모금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학부모와 지역 유지들이 감동하여 약 190원을 모금했다(조선일보 1924년 2월 3일). 1925년 한경직이 미국 유학을 갈 때, 윤치호는 그에게 100원의 장학금을 주었다. 이 돈으로 미국 가는 뱃삯을 지급하고도 얼마를 남겼다.

조선청년연합회에서 연설했던 청년 응변가 한경직

숭실대학 시절 한경직은 응변으로 이름을 날렸다. 1922년 9월 28일 동아일보사 평양지국과 평양기독교청년회 주관으로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응변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에 한경직은 숭실대학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1등을 했다(동아일보 1922년 10월 2일).

한달 후 10월 30일에 조선청년연합회 주최로 서울 YMCA에서 전국의 전문학교 학생들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은 일본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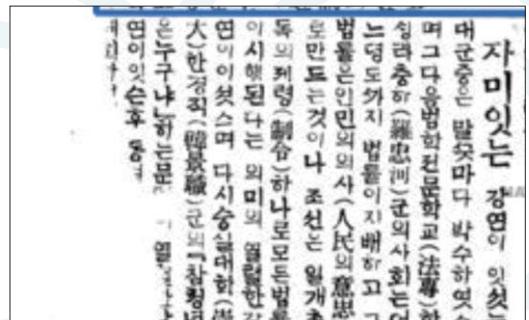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이날 한경직은 송실대를 대표하여 ‘참 청년이 누구뇨?’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흥미 있는 것은 위의 응변대회를 소개하는 동아일보 11월 1일의 기사는 “‘한경직 군의 참 청년은 누구냐’하는 문제의 열렬한 강연이 있고 난 뒤 폐회했다”라고 하여 중간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한경직의 연설 내용이 불온하다고 판단되어 당국의 제지로 정지되었으며, 그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독부는 종종 조선어신문의 기사 중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민주, ‘일제 검열에 대한 조선어 민간신문의 대응양성연구’, 「한국언론학보」 62-1(2018), 73].

응변대회를 주최한 조선청년연합회는 3·1운동 이후 동아일보가 600여 개의 청년, 종교단체들을 모아서 조직한 단체로, 그 목적은 민족의 역량을 모아 항일민족운동의 기지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 모임의 사상적 기초는 동아일보 주간 장덕수가 제공했고, 나중에 한국의 순교자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도 참여하고 있었다. 한경직은 1922년에 한국의 대표적인 항일청년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모임에 사회주의자들이 침입하여 좌우 이념의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조선청년연합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실대 음악전도대의 역사로 활동한 한경직

3·1운동 이후 한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펼쳤다. 이런 교회의 흐름과 함께 송실대도 악대와 연사로 구성된 음악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전도에 나섰다. 이런 전도는 종종 민족운동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한경직도 송실대 재학 중 전도대의 일원으로 각지에 다니면서 민족을 각성시키고 복음을 전했다. 1923년 1월



「동아일보」 1922년 11월 1일

28일 평남 용강군 용원면 갈현리 장로교회는 송실대의 음악대와 한경직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음악대는 20여 개의 신식 곡을 청중에게 소개했고, 이어서 한경직은 ‘오인(吾人, 우리)의 활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집회에는 500명의 청중이 참여했는데, 7시에 시작한 집회가 10시가 되어서 끝났다(동아일보, 1923년 2월 6일).

1923년 2월 3일 진남포 석리장로교회에서 이곳 기독청년회 창립 3주년 기념집회가 열렸는데, 한경직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700~800명이 모인 집회에서 한경직은 ‘폐허에 입하야’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조선의 풍속, 예수의 행적, 그리고 세계 대도시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폐허 된 조국을 다시 세울 방법을 열렬히 설파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방법인 환동기를 이용하여 연설하며 청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동아일보, 1923년 2월 3일).

1923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6월 23일부터 약 10일간 송실대기독청년회는 본격적인 전도단을 만들어 만주 봉천 방면에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단은 악단과 연사



1



2



3

① 한경직 목사의 송실대학 시절 모습 ② 송실대학 초창기의 주역(앞줄 왼쪽 김형남, 오른쪽 한경직, 뒷줄 왼쪽 이창노 교수, 허봉락 이사, 우호익 교수, 이인환 총무과장) ③ 평양 송실대학 본관 건물(1920년대) | 한경직 기념사업회 소장

로 구성되었다. 악사는 한청선, 현제명 등 7명이 포함되었는데, 현제명은 나중에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 연사는 물론 한경직이었다. 한경직은 강연 도중 백두산의 성스러움과 신비를 한민족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그러자 당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그 담당자가 바로 조선인 형사였다. 한경직은 “경찰서에 가서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예수장이 깨불면 없다’라고 공갈을 칩니다”라고 증언했다(경향신문. 1972년 7월 22일). 당시 기독교와 민족의식은 상호 밀접하게 관계했다.

3·1 운동 이후 조선학생회 집행위원 한경직

3·1운동 이후 학생들은 독립운동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1920년에 조선학생대회를 열고 과거 친목 중심의 학생운동을 지양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제는 1922년 중등학교 교장 회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이런 활동을 금했다. 따라서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3·1운동 이후 당시 최고 교육기관인 전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학생회 창립 움직임이 일어났고, 여기에 송실대도 참여했다. 1923년 2월 9일 YMCA에서 조선학생회가 조직되었고, 경성의전의 김장생이 위

원장이 되었다.

한경직은 1924년 2월에 열린 조선학생회 제2회 정기회의에 송실대 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위원장은 경성 고공의 조귀순이었고, 각 학교 대표로 3명의 집행위원이 선출되었다. 한경직은 박성덕, 장애경과 함께 송실대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여기에 참여한 학교는 경성의전(현 서울의대), 경성법전(현 서울법대), 연전(현 연세대학교), 고공(현 서울공대), 고상(현 서울상대), 보전(현 고려대학교), 세브란스의전(현 연대의대), 송실태였다. 조선학생회는 당시 조선 최고 학교의 학생 모임이라는 점에서 공인된 민족 세력의 일익을 담당했고, 일제는 이 모임을 경계했다(‘조선학생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경직은 1925년 3월 송실대학을 졸업했다.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19명이 졸업했는데, 그중 한경직은 선교사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총독부는 한경직에게 바로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필자는 한경직의 각종 애국 계몽 활동과 조선학생회 참여가 일본이 그를 경계하게 했다고 본다. 한경직은 이후부터 일본당국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계속했다. **만날**



교회창립 8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디지털 역사관이 지난 9월 13일(토) 개관했다. 이날 80주년 역사분과 위원 및 임원, 은퇴·시무장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드려진 감사예배는 김순미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의 인도로 황재영 목사의 기도와 김운성 담임목사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김운성 목사는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합니다’(사무엘상 12:23~24)라는 제목으로 80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며, “성도들이 디지털역사관을 통해 영락의 거룩한 유산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각인되고 거룩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80년의 열매들을 나누고 반추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들었으니, 앞으로 콘텐츠를 더욱 채워가며 잘 활용하여 한국 교회, 나아가 세계 교회와 호흡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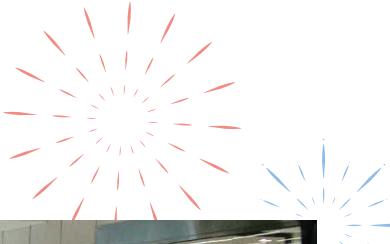
역사를 공유하자”고 전했다.

이번 디지털역사관은 지난 4월 (주)나라지식정보와 계약하여 6월 제작회의 등을 거쳐 제작 방향을 결정, 8월 시연회를 개최하고 한 달여 만에 완성하여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교회의 80년 역사를 디지털 기기(휴대폰, PC 등)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디지털역사관을 오프라인 건물로 치면 길이 70m, 폭 45m, 높이 8m에 달하며, 약 952평 10층 건물 규모이다.

십자가 형태로 꾸며진 가상공간은 영락교회 성장 및 발전(A존), 영락교회와 한국 사회(B존), 영락교회와 한국기독교(C존), 영락교회 5대 본질(D존)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http://youngnakdham.net>)에서 관람할 수 있다. **만남**

취재 김경옥 기자

‘남산 뷰’ 코이노니아 공간에서 교제하세요



리모델링 공간 개관예배 후 테이프커팅하는 모습

50주년기념관 1층·지하 1층 리뉴얼 감사예배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1층과 지하 1층 교제 공간이 새단장하여 지난 9월 6일(토)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주와 함께 우리 모두’(요한일서 1:1~4)를 주제로 말씀하시며, 이 공간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더불어 성도와 지역 주민이 그 공간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차남수 장로(코이노니아 공간분과 분과장)의 공사 준공 경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고, 이어서 사진 촬영과 테이프 커팅이 진행되어 새롭게 열리는 공간의 공식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기도와 참여로 완성… 남산 품은 사랑의 공간

이번 공간 재구성 사업은 2023년 8월 80주년기념사업회 코이노니아 공간분과의 리모델링 추진 결정 이후, 전문가 공개 세미나와 성도 대상 설문, 디자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성도들의 마음이 깃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넓은 통창 너머로 탁 트인 남산 전경이 펼쳐지는 50주년 기념관 로비의 만남카페는 성도와 지역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제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웃음·설렘 가득한 출발… 신앙의 보금자리 되길

오픈 첫날, 많은 성도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웃음과 설렘 속에 새 공간을 즐겼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만남과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며, 앞으로 펼쳐질 신앙 공동체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기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1층 미팅룸 2실과 지하 1층 소그룹실 3실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7~8명에서 최대 15명까지의 소규모 모임과 깊이 있는 신앙 교류에 적합한 소그룹실은 성도 개개인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영적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간 재구성을 통해 영락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교회와 모든 이의 아름다운 만남과 성장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재 김천경 기자

운영시간	
주일	07:30~19:30
화, 목, 금요일	09:30~18:30
수요일	09:30~19:30
토요일	09:30~17:30
월요일	휴무
미팅룸	
행정처 장소 사용 신청 (사용승인 마치고 10월경 예상)	

선교관 지하2층 제2식당 다목적 공간으로 새단장



제2식당

선교관 지하 2층 제2식당이 새롭게 조성되어 9월 20일(토)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떡을 떼심으로 알려지시다’(누가복음 24:35)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이 공간이 성도들에게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되어 교회 발전을 위해 중점적 의견이 모아지는 장소로, 또한 3040세대들의 교제의 장소로 활용돼 활기찬 소통의 공간으로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2식당은 주일에는 새가족부 환영회 및 각 부의 세미나실로, 매주 수요일은 평생대학 학생들의 오찬의 자리로, 주말에는 3040세대를 위한 결혼 피로연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본당과 선교관에서 올리는 결혼식을 영상으로 중계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 음향기기 등 시스템을 갖춰 더욱 뜻깊은 장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수유실과 강사대기실, 준비실, 벽쪽으로는 수납장을 설치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만날



영락 8개 찬양대 총출동 감동 선사 피날레는 연합찬양으로 의미 더해

9월 13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은혜의 80년’을 주제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교회 음악부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음악회는 창립 연도를 기준으로 1부 할렐루야(2019년 지휘 안정현, 협 노원일), 베들레헴(1982년 지휘 박

영근, 협 백정진), 갈릴리(1982년 지휘 오세종, 협 조성환), 갈보리(1973년 지휘 김두완, 협 박신화), 임마누엘(1967년 지휘 윤치호, 협 박진우), 2부 호산나(1965년 지휘 김종일, 협 장세완), 베다니(1961년 지휘 안영선, 협 백승현), 시온(1946년 지휘 강신명, 협 조형민) 찬양대 등 총 8개 찬양대가 모두 참여했다. 그중 연합찬양대로 꾸며진 마지막 무대는 특별한 감동을 더했다.

이번 기념음악회는 전석 초대로 참석자들에게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베다니홀 1, 2층은 물론 드림



홀, 1층 코이노니아 공간까지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영락교회 음악부는 일찍이 한국 교회 음악의 성지로 불리는 가운데 박재훈, 김두완, 곽상수, 윤학원, 박영근, 오세종, 박신화 지휘자 등이 맡아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음악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악가로 곽신형, 박순복, 윤치호, 박수길, 박미경 등이 찬양대 솔리스트를 맡아 한국 교회 찬양대의 산실이기도 하다.

영락교회, 한국의 교회가 성가대의 이름을 붙이는 첫 번째 모델이 되다!

“1951년 부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시 처음 성가대원이 20명 모였는데, 그때 거지단(巨志團 :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조직의 청년들이 참여했어요. 그때 교인은 7명, 성가대는 20명이었고, 저는 전쟁이 끝난 후 1953년부터 영락교회에서 봉사하게 됐어요. 1953년 본 성가대를 맡으면서, 나는 성가대 이름을 시온 성가대로 정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교회가 성가대의 이름을 붙이는 첫 번째 모델이 되었습니다” (출처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 P.101~102, 홍성사, 2013)

특별히 이날 80주년을 기념해 갈보리찬양대가 부른 ‘영락이여 비상하라’는 영락교회 홍권옥 권사(한국교회음악협회 고문)의 곡으로, 특별히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락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영락교회 80주년. 김운성 목사는 “오늘 천 명이 넘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의 80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불렀던 ‘은혜의 주님’ 그 곡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합시다.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감동을 전했다. **만남**

취재 인 미기자



원팀, 원골… 동행과 섬김 배운 축구캠프

설악축구장에서 3박 4일 교제와 성장의 시간

영락교회 축구교실은 김형태 집사께서 2000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한 건강과 신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여름 축구캠프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춘 시간을 제외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자 교회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이 쌓여

만들어진 건강한 열매라 생각합니다.

올해 축구캠프는 8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3박 4일간 설악동 수양관과 설악축구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양관에서 학숙하며,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과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오후에는 축구 훈련과 자체 시합, 저녁에는 축구 영상의 시청각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교제하며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다음날에는 강한 햇볕 때문에 축구하기 조금 힘든 날씨에, 또 단체 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편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식사에 힘들어하며 집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친근해지더니, 훈련시간에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점점 높아지고, 놀이 시간에는 함께 소리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처음에 집에 언제 가는지 물었던 아이들은, 마지막에는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감독, 코치,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은혜의 캠프

이런 감동적인 캠프를 위해 총괄하신 김형태 감독과 축구 훈련을 이끌어주신 이태현 코치를 비롯해 많은 봉사자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반석, 김준오 OB 교사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셨고, 신주현 목사님과 김혜민·신지원·김동현 전도사님들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접 운동장을 함께 누비며 아이들과 같이 열정적으로 뛰어 주셨고, 즐거운 렉크리에이션과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민정임·김안자·최인숙·박희순 권사님들께서는 20년 가까이 손자·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매끼니 맛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지수·양현재·허선영·최선혜 학부모 봉사자들은 아이들과 축구도 함께하고, 장보기, 빨래, 정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써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진 봉사를 맡아 주신 원종석 집사님과 현지를 방문한 전·현 소년부장님들, 교사 및 학부형들의 격려와 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과 기도로 동행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39명이 건강하

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는 축구교실 1기 졸업생인 이태현 코치님이 많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축구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접목한 수업으로 축구가 낯선 아이들도 즐겁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치님은 UEFA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프랑스 축구협회 유소년(U-16) 지도자, 안산FC·성남FC 유소년 코치, 프랑스 PSG 한국 유소년 감독으로 활동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유소년 축구팀을 창단하여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지도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는 청년부의 성도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귀한 모임되길

무더운 여름, 비와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무사히 마친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축구 실력뿐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과 섬김의 가치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영락교회 축구교실과 여름캠프가 계속 이어져, 자라나는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어울리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영락교회 축구교실 파이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만날**

양현재 성도
동대문·중랑교구
부부선교회



두근두근 첫 하기선교 ‘전도의 은혜’ 경험했죠



공동체와 함께 ‘진짜 신앙’을 배우자 결심

저는 올해 청년회에 막 올라왔습니다. 낯설었지만 공동체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배우고 조용히 섬기며, 신앙이 일상이 되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 걸음만 더’라는 결심으로 첫 하기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전도는 자신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라는 마음으로 벽화 봉사만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하게 마지막 날 저를 전도 현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윤성훈 부팀장님의 “전도의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마지막 밀어줌이 되었습니다.



안다솔 성도
청년회 주는나무

청년회에 올라오며 품었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리고, 선배들의 삶을 곁에서 보며, 일상 속 제 신앙의 중심을 키우는 것, ‘공동체와 함께 ‘진짜’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선교 소식을 듣고 ‘작은 손 하나라도 보태자, 반드시 가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실로 느끼고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부족한 제게도 가능하다면 그럴 용기를 주시길…’

벽화 봉사에서 복음 전도 도전

선교는 포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벽화를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미용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을 뒤흔든 것은 마지막 날의 방문 전도였습니다. 첫 번째 집은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두 딸은 불교라 했지만, 함께한 자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네, 궁금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고, 주일에는 두 딸과 함께 교회에 와 식사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이 설명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영접과 거절… 그 안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

또 한 집에서는 “난 불교 신자입니다. 선물도 안 받고 이야기도 안 듣겠어요”라는 단호한 거절을 만났습니다. 이 집은 저의 제안으로 방문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전도 팔찌만이라도 받아달라 부탁했고, 결국 손목에 채워 드리며 색 하나하나에 담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들었다. 평생 말도 못 하고 살아왔다. 한마디 ‘용서해 달라’ 한다고 용서가 되나?” 함께한 자매가 “믿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담대히 전했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김기라며 성만 알려주시던 분이, 기도 후에는 이름 석 자를 스스로 밝히며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문을 여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베트남 가정의 믿음이
지역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영접하신 할머니의 건강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상옥교회 다음세대와 지역 영혼을 위한
지속적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부족한 저를 은혜의 도구로 써주셨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저의 기대는 ‘배움’에서 ‘순종’으로, 신앙의 초점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연합예배에서 들은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너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며 저를 괴롭히던 비교와 불안을 풀어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전처럼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지니 외부의 바람이 저를 꺾지 못했습니다. 첫 하기선교는 제게 ‘부족한 저도 은혜의 통로로 쓰셨다’는 감사를 남겼습니다. 만남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새로운 자리, 두려움 속에 만난 주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영락대학부 110대 학생회 모퉁이돌에서 예배·홍보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새 공동체에서 주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가야 할지, 또 내가 가진 작은 섬김이 공동체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학생회라는 자리에 세우셨고, 더 분명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제 신앙은 단단해졌습니다.

여름수련회는 학생회 사역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부담도 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 일들은 끊임없이 쏟아졌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해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기태 성도
대학부

그 사랑은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끝까지 걸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마다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 기도의 손길 하나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있어, 나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You Still Love Me, 은혜의 현장

드디어 8월 14~16일, 'LORD-ING: 예수님 닮아가는 중'이라는 주제로 김포 청소년 로그밸리 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 벗님들이 단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학생회가 준비한 시간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나눔 프로그램과 물놀이가 있었습니다. 물놀이 속 웃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이해하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단단히 세워가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현 목사님의 에베소서 4장 15-16절 말씀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저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향해 주님이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신다는 사실 앞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회 시간에는 대학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불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던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학생회와 예배 중 두 손들고 찬양하는 벗님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을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지만, 상처조차 품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올해 영락대학부의 표어는 ‘함께 지어져 가는 대학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의 이름도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벗님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위에 서로 세워 가며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한번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주님의 사랑이 제 삶의 소망임을 확인했으며,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고백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제 삶을 변화시킨 은혜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고백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날**

다양한 선교사역 축제에 초대합니다

2025 선교대회 10월 15~17일 개최

2025년 선교대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10월 10일(금)부터 17일(금)까지 열립니다. 주제 성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입니다.

선교대회는 10월 10일(금) 저녁 베다니홀에서 특별 금요 기도회와 문화선교팀 창작 뮤지컬 <구레네 시몬>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뮤지컬 <구레네 시몬> 공연은 12일(주일) 오후 3시 30분 베다니홀에서 한 번 더 공연될 예정이며, 학원선교사역에 연계된 학교 학생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여 함께 합니다. 12일(주일)에는 국내선교, 해외선교, 문화선교, 학원선교가 참여하는 선교주일 마당행사가 열리며, 오후 2시에는 외국어예배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10월 22일(수)과 24일(금)에는 '만남과 나눔'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선교부흥회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15일(수) 강병화 부룬디 선교사, 16일(목) 김주신 동북아시아 선교사, 17일(금) 황관중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요1부 기도회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김동익 영락교회 러시아 파송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학원선교대회는 12일(선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리며, 대광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우수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선교세미나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매일 오후 1시30분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농어촌세미나'는 15일(수)에 서면 중앙교회 소병일 목사, '군선교세미나'는 16일(목) 성인교회 황성준 목사와 지철홍 군선교사(11사단 955포병대대)가, '해외선교세미나'는 17일(금)에 영락교회 파송/협동 선교사님들께서 사역보고와 특강을 진행하십니다. '유학생선교세미나'는 18일(토) 오후 2시 50주년기념관 604호에서 영락교회 프랑스 협동 선교사이신 고금자 선교사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금요기도회는 24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김하영 영락교회 탄자니아 파송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부

2025년 선교대회

오직 여호와를 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10월 10일(금) ~ 17일(금)



선교부흥회

15일(수)~17일(금)
오후 7시, 본당



15일(수) 강병화 선교사
(부룬디)



16일(목) 김주신 선교사
(동북아시아)



17일(금) 황관중 선교사
(M국)

특별금요기도회 문화선교 공연

10일(금) 오후 7시 30분, 베다니홀

수요1부 기도회

15일(수), 22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문화선교 공연

12일(주일) 오후 3시 30분, 베다니홀
뮤지컬 “구레네 시몬”

선교 세미나

농어촌선교세미나 15일(수) 오후 1시 30분, 드림홀
군선교세미나 16일(목) 오후 1시 30분, 드림홀
해외선교세미나 17일(금) 오후 1시 30분, 드림홀
유학생선교세미나 18일(토) 오후 2시, 기념관 604호

선교주일

12일(주일) 1~5부, 마당행사

학원선교대회

12일(주일) 오후 5시(찬양예배), 본당
강사: 우수호 목사(대광고등학교)

영락만나 “만남과 나눔” 바자회

22일(수), 24일(금), 베다니광장
주관: 여전도회

목적 현금 |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 현금

- 주시원 선교사 (치앙마이 선교훈련원 건축 지원)
- 김경식 선교사 (콩고 병원의료장비 지원)



온몸으로 찬양하는 기쁨 스티그마를 아시나요?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흔적을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춤추는 예배자 공동체입니다!

예배, 온몸으로 드리는 기쁨

저는 대학부 찬양팀에서 처음 워십댄스를 접했습니다. 예배를, 특히 춤추는 예배를 배우며 온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후 중등부 여디디야 찬양팀 교사, 청년부 문화선교부를 섬겼고, 선교단체[FL(Father's Love)]에서 SOWD(School of Worship Dance) 훈련을 받고 간사로 섬겼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중보하면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으로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커져만 갔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다시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지해준 남편의 응원 덕분에 스티그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본당 지하 연습실. 주님과 우리만 아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했지만, 온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혜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스티그마워십 단장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

그러다 작년에 단장직을 기도해 보라고 권면 받았습니다. 못 하겠다 싶었지만, 통독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결국 단장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장이 되었지만, 모두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두려움만 일었습니다. 두려우니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연습 전, 한 시간 일찍 도착해서 세팅해놓고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해주셔서 입술을 주장해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해주세요. 각 팀원들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많은 이들과 온몸으로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도록 함께할 팀원들도 보내주세요….'

남은 팀원은 단 세 명, 선하, 소은, 그리고 저였습니다. 팀원을 보내 달라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할 지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귀국한 유진, 마음과 상황을 움직여주신 은영, 객원에서 팀원이 된 영선, 몸으로 찬양하고 싶은 유미, 회복하고 돌아온 은혜까지 합류했습니다. 할렐루야!

춤으로 고백한 기쁨, 그리고 예배

부활주일에는 <우리 때문에>와 <우린 주를 만나고>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게 하신 성령님을 고백하고, 회중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는 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일부분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국군 용사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지금은 연합팀으로 80주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예배자로 살기

돌아보면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셔서, 동행하시며 연단하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외에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육신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궤가 올라갈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췄듯,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님이 각자의 몸짓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많은 분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티그마팀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춤추는 예배자로 잘 성장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날**



일상에 스며드는 전도 도전받고 격려되는 삶

병원에서, 역사에서… 25년 전도의 삶

2000년 9월,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회사 동료를 향한 관계 전도, 그리고 교회 사역인 군부대, 학원, 하기선교를 통한 전도는 물론 병원 전도, 서울역·한옥마을 노방 전도 등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5개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며, 영락교회는 목요일과 주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전도를 진행합니다. 전도훈련받은 평신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제사할 수 있으며, 병원 내 교회인 원목실을 통해 전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병실에서 만난 복음의 기적

보라매병원 9층 병실에서 전폭훈련생과 함께 무종교 배경의 유방암 환자 정OO(41세, 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방암 진단의 충격으로 인해 깊은 불안과 걱정으로 우울증에 빠져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부분에서 갑자기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련생이 건네는 티슈로 계속 눈물을 닦고 진정된 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까지 전하니 그분은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며 결신했고,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천국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관 속에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기쁨으로 투병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얻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은 훈련생과 전도자에게도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 호흡기 너머 전해진 복음

임종 상태의 중환자에게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병원 목사님의 당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못하고 잘 듣지 못해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고 전해주세요.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증 환자 이OO(89세, 남) 님에게 다가가 복



3



4

- 1 서울의료원 영락교회 전도팀
- 2 군부대 장병에게 복음 제시
- 3 병원 전도(서울의료원)
- 4 하기선교 시골마을 전도

음 제시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허락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분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조금 큰소리로 복음의 핵심 부분을 요약하여 복음을 제시했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결신 기도와 확신 기도를 함께 드리니 어르신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르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묻고 귀를 기울여 들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가 그분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결신하게 해주셨습니다.

● 구원 확신 못하던 미국 교포도 결신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난 김○○(61세, 여, 美 시애틀 거주)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그에게 영락교회 윤극명 안수집사라고 소개하자, “한경직 목사님 세우신 영락교회 집사시군요!”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도 없었고 그 이유도 모르고 있었습니 다. 복음을 제시하니,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고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확신을 갖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기차 탑승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저는 선물도 드리지 못하고 떠납니다”라고 인사하셨고, 저는 “천국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고, 저는 전달자일 뿐이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전도보다 더 다급한 사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마가복음 1:38)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해서 감당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전폭훈련 교재 중)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전도자가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만남**

윤극명 은퇴안수집사 _ 서초교구



1



2

■ 1 이번 인터넷 해외선교에서 동역한 치앙마이 나눔선교회의 주시원·김경애 선교사부부 ■ 2 태국 정부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한 현지 신앙수련회

순교자의 성경책 뜯어진 낱장처럼… 우리 선교여정도 '복음의 밀알' 되길



태국 치앙마이에서 3남 인터넷해외선교

지난 3월, 행사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로 향하면서 시작된 답사에 이어 8월을 향해 준비하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은, 단순히 걸으로 드러나는 '인터넷해외선교봉사'라는 모습보다 훨씬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그리고 올해는 직접 이끌어가는 자

리에서 '선교'의 본질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 받은 자'가 연합하여 만들어가는 선교의 여정. 그 안에서 작은 손길도, 큰 손길도 모두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동행' 보파리 제대로 저격한 말씀

무사히 치앙마이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기 전, 주일 오전 예배에서 황재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 옛 날이야기 하나가 유독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Robert J. Thomas, 1839~1866)가 순교 직전에 건네준 몇 권의 성경책 낱장이 당시에는 그저 멧들어지게 벽지 역할로 생을 다한 듯 여겨졌지만, 결국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고, 평양대부



지상우 집사
서초교구
3남선교회장

홍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동행은 단지 3월부터 8월까지의 '보냄'과 '보냄 받음'의 조각들이 아니라, 성경 속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작은 조각이 모여 결국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말씀 역사 속의 연장선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론 하나님 믿는다며 날씨 걱정 부끄러워

물론 그 과정에도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했을 당시, 태국은 우기였고, 예상보다 더 많은 비 때문에 '일정 변경'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 까지 드리며 입술로는 끝없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일정의 일부는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대로 진행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날씨와 상황을 이끄셨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해그림자의 이동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주일간 날씨는 야외 및 실내 일정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마치 하나님께서 "왜 고민했느냐?" 물으시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 단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물론 모든 일과 사항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리더로서 흔들렸던 제 모습은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날**



③ 선교사님 자녀들(MK)과 봉사단원 자녀들의 즐거운 교제 현장

④ 예배팀의 경배와 찬양

⑤ 동영상·포스터 제작 등 IT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는 선교사님들



4



5



미얀마어예배

무거운 짐 지친 영혼들 소망과 사랑의 피난처



황관중 선교사 현지사역에서 출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영락교회 미얀마어예배로 인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 미얀마어예배는 멀리 집을 떠나 있는 우리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상황 때문에 많은 이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낙심하며, 영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학업,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을 안고 한국에 온 그들에게 영락교회는 소망과 사랑의 피난처입니다.

미얀마어예배는 미얀마 현지에서 황관중 선교사님 사역으로부터 준비되었습니다. 황 선교사님과 한국어 공부를 하고



탕 시안 킵 목사
미얀마어예배

예배를 드린 5명의 자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영락교회 미얀마어예배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선교부 목사님과 많은 분의 기도로 2022년 10월 9일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김하영 선교사님(탄자니아 파송)의 섬김과 사랑으로 시작되어 김하영 선교사님이 2024년 4월까지 인도해 주셨고, 2024년 5월부터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봉사관 304호에서 예배

미얀마어예배는 매주 오후 1시 봉사관 304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안녕! 미얀마' 행사를 통해 믿지 않는 미얀마 학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미얀마 학생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자란 미얀마 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하는 일'임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어예배 성도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목표로 온 유학생입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 때문에 학

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낮엔 공부, 밤엔 알바, 주일예배 참석 힘들지만…

미얀마어예배의 성도들은 한국에 온 지 짧게는 6개월부터 5년 이상 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학비를 벌고 집에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한 후, 자정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힘든 시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만 원이면 미얀마에서는 한 달 월급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자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합니다.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주일이어서 예배에 나오기 힘든 학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저희는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갔던 성도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일이나, 대학 입학 앞두고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필요했는데 여기저기서 도와주셔서 마련해 주셨던 일, 경제적으로 어려워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에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음 학기 걱정을 덜게 되었던 일,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비자 문제가 기도 가운데 해결되었던 일,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필요한 기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우연히 우리의 소식을 들은 집사님이 기타를 기증해 주셨던 일 등,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비록 주일에 모이는 인원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컷습니다.

또한 미얀마어예배 성도들은 영락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와 기도의 장소일 뿐 아니라 가족 같은 공동체로 치유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열어주신 것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학업과 일상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더 잘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때로는 먹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운 고향과 가족 생각에 혼자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하나님의 길 걷도록 기도를

미얀마어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안하고 위험한 땅이 되고 있는 미얀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미얀마 현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유학생들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학생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미얀마어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언젠가 다시 미얀마로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학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만날**

제 순교지는 다음세대입니다

다음세대와 동행하는 은혜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안양·수원교구와 중등부, 선교부(문화)를 섬기고 있는 정근우 전도사입니다. 목회를 배우며 깨닫는 것은, 각 가정이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요한 순간을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마다 성도님들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올 수 있음이 제게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세대와 동행하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빌립 같은 사람 되어라”… 주님 음성

작년 영락교회 중등부에서는 42명의 교역자, 교사, 학생이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향해 비전트립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지를밟았고, 가는 곳마다 예배했습니다. 무너진 터만 남아 예배하기 어려운 장소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날, 히에라폴리스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사도 빌립의 순교 장소와 무덤이 있



정근우 전도사
안양·수원교구
중등부

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한 후, 저는 한 학생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우야, 네가 사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 음성에 제 마음은 불타올랐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빌립이 품었던 히에라폴리스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할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다음세대’라는 선명한 네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의 다음세대를 위해 순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음세대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다음세대가 예배하는 그날

제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다음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꿈을 꿀 때, 저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패배주의의 영성과 매너리즘과도 맞서야 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자고 이야기했던 열 명의 정탐꾼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저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음세대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다음세대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 땅의 다음세대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침체 와중… 중등부 찬양 점점 뜨거워져

다음세대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청소년 복음화율은 약 3%입니다. 청소년 선교는 침체해 있으며, 미전도 종족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학생들에게 심어줍니다. 이 와중에 기적은, 영락교회 중등부 학생들의 찬양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아이가 주일예배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저녁식사를 포기하더라도 저녁 집회 앞자리를 사수합니다. 찬양과 기도회의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순종

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잠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중등부 학생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고민하며 나아갈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쉬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다음세대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도 벌립은 떡의 양을 계산하는 제자였습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삶을 드리는 순교자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만남**



힐링 절실했던 우리 가정 주님이 회복의 은혜 주셨어요

감사로 시작된 영락가족 힐링캠프

8월 7일! 손꼽아 기다리던 힐링캠프의 첫날. 기다림 끝에 도착한 추양하우스! 그곳의 전경은 자연 친화적이고 아늑했다. 깨끗한 하늘과 구름,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 푸른 나무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소한 것 같은 이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오며 감사가 절로 나왔다.

가족 별로 숙소가 배정되었고 여는예배를 시작으로 가족 소개와 소그룹별 나눔과 교제를 했다. 최고의 만찬으로 식사 후 상담부 최재선 목사님의 가족 특강이 진행되었다. 우리 부모가 믿음을 삶에서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그 믿음이, 신앙이 자연스레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을까? 필요에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닐까?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었나? 그럴 자신은 있는가?’ 내 연약한 믿음에 부끄러웠지만 이내 회개의 영이 부어져 회개할 수 있었다.



변주은 성도
안양·수원교구



둘째 날, 부부간 이해하기… 해변의 노방전도 귀한 체험

둘째 날 특강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다. 배우자의 단점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분을 ‘나와 다른 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낙산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시간! 전날 최재선 목사님께서 해수욕장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힌트에 더욱 기대되었다. 해변에서의 스페셜한 활동은 바로 ‘전도’였다. 전도 용품을 넣은 작은 봉지를 가정당 하나씩 주시고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일이었다. 처음엔 혹시라도 ‘놀러 와서까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조금 두려웠지만,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했다. 이내 용기가 생겼고 우리 가족은 해변에서 물놀이용품을 대여해주시는 분들께 향했다. 조심스레 다가가 “안녕하세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말씀드리고 전도지를 건넸다. 어느 교회인지 물으시고는 감사하다며 밝은 미소로 받아주셨다. 난생처음 노방전도를 했다. 어렵게만 생각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귀한 경험을 하고 물놀이하니 그 기쁨은 배가 되었다. 날씨는 얼마나 좋았는지!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공해주심에 감사가 절로 나왔다.

가정마다 올려드린 기도, 회복의 은혜

늦은 저녁 기도회 시간이 있었다. 이 기도회는 2박 3일 일정 중 하이라이트였다! 모든 가족이 만든 큰 원 안에 한 가정씩 들어가면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손을 얹어 대표로 기도해주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가정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합심 기도했다. 꽤 긴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성령의 바람이 통과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정 차례가 되어 원 가운데로 들어가 기도를 받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주심에 감사했고, 올해 우리 가족이 왜 이 힐링캠프에 참가했는지 알게 해주셨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캠프 신청을 하고 며칠 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는 불안해했고 우리 가정

은 빠르게 흔들렸다. 그러나 기도회를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밤을 선물로 주셨다.

감사와 섬김으로 채워진 2박 3일

2박 3일간 감사가 더해졌다. 가족 힐링캠프를 위해 애써 주시는 많은 분의 헌신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 첫째 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준비해주신 바비큐와 알맞게 구워주신 돼지고기, 생물 오징어, 새우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둘째 날은 속초의 명물 물회를 준비해주셨다. 더운 날씨에 속이 뻥 뚫리며 신선한 해산물이 얼마나 다채로웠는지! 식사 때마다 갖가지 반찬들은 아이들 입맛에 맞춰져 있었고 종류도 다양했다.

그리고 해수욕장 일정을 위해 당일 새벽부터 준비해 주셨다. 예정된 프로그램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셨으며, 사진으로 기록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족사진도 찍어 주셨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의 섬김을 누렸다. 소그룹 나눔 때 한 집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여기서 받은 큰 섬김을 잊지 말고 나중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자는 말씀이었다. 맛다. 받음에 감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섬김을 잊지 말고 꼭 선순환되도록 나도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해 본다.

영과 육이 모두 힐링 되고 재충전했던 영락가족 힐링캠프! 많은 가정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시며 그곳으로 열여덟 가정을 초대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남**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 ‘사람 낚는 어부’의 필수조건

1기 소그룹 리더십 훈련 8주 과정 마무리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진행된 ‘제1기 소그룹 리더십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락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폭넓게 교제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사역이 필수적입니다.

소그룹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김영건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소그룹전담부 차장

니다. 이를 위해 영락교회에서는 김운성 담임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소그룹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동안 7년 여에 걸쳐서 주일 소그룹을 비롯하여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후 토요 소그룹, 선교회·여전도회와 구역 모임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소그룹 리더, 기도로 세워야 하는 이유

이런 소그룹사역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리더는 누구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다”(마태복음 4:19)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당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잘 훈련해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서 세움을 받게 해야 합

니다. 즉, 소그룹 리더는 단순한 모임의 진행자나 관리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가 꼭 갖춰야 할 리더십은 쉽게 말해서 배를 이끌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소그룹전담부(부장 박형화 장로)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작년부터 소그룹전담부의 지도를 맡은 김승겸 전도사님이 교재를 제작하여 이번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이론과 실제, 구체 피드백까지 큰 유익

이번 리더십 훈련은 새로 부임하신 김여호수아 목사님께서 매주 뛰어난 강의와 지도로 훈련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20명으로 계획했던 수강생이 두 배에 달하는 4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교재는 1장 성경적 소그룹부터 8장 소그룹의 생애 주기와 리더십 재생산·맺음말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리더십의 원리를 배우고, 기독교 리더십을 이해하며, 마가복음 본문으로 직접 소그룹 인도를 실습하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시간은 참여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소그룹전담부의 임원들(담당 전차남 권사)도 유난히 무더운 여름철에 진행된 훈련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드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섬김의 자세로 교육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부교재였던 한홍 목사님의『거인들의 발자국』을 읽고 매주 독후감을 제출하는 과제를 통해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과 신뢰, 그리고 깨끗한 인격이며 이는 사랑, 희락, 화평 등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갈라디아서 5:22~23)와 일맥상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5) 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리더십이 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임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별써 1기 수료생 중 새 리더들 세워져 활동

훈련의 열매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1기 수료생 중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 ‘소그룹으로 배우는 마가복음’(주일 소그룹, 10월 12일 개강 예정)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미리 만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소그룹 리더십 훈련 2단계’를 추가로 진행하여 영락교회 곳곳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나갈 더 많은 리더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제 잘 훈련된 리더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소그룹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동역자들과 함께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날**

2026년 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당회

교회의 2026년 사역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제49회 정책당회가 지난 9월 1일(월)부터 2일(화)까지 경기도 가평우리마을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당회에서 김운성 담임목사는 '2026년도 영락교회 목회 방향 제언'을 통해, '81주년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영락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시작은 '복음'·'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복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임을 강조하며, 그런 의미에서 2026년 표어를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 방향과 표어를 구체화하여 실행할 한 가지



방안에 대한 탁현수 목사의 발제와 분과별 토론 및 발표도 이어졌다. 주요 주제는 새가족 활성화, 3040 활성화, 전도 활성화 등으로, 각 교구에서 이 사역들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하반기 교사기도회… 말씀과 간증으로 넘치는 은혜

교육부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는 8월 30일(토)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하반기 교사기도회를 개최했다. 주일학교[사랑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유년, 초등, 소년, CebC),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베드로부] 교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도회는 이종실 목사의 인도, 교역자 찬양팀의 찬양, 조용철 장로의 기도에 이어 최관하 목사(더작은재단 스쿨치지임 팩트 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눈물로 무릎으로 목숨 걸고(시편 126:5)'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일반고였던 영훈고에서의 교사 시절, 기독교 학교로 전환 후 교목으로 섬겼던 일을 간증했다. 이어 방덕종 목사의 인도로 각 부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로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2부에서는 '교육부 여름사역 보고 영상'을 시청한 후, 최현우 안수집사(교육부 차장)의 진행으로 '영어성경 암송 어린이대회'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2026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항존직 선거] ①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장로 15명과 안수집사 1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주시고 협력바랍니다.

▣ 선거일정

- ▶ 후보추천서 접수 9월 15일(월) ~ 9월 28일(주일)
- ▶ 공천후보자 기도회 10월 19일(주일) 찬양예배 후, 50주년기념관 503호
- ▶ 선거일자
 -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 투·개표 진행
 - 1차 투표(후보대상) : 11월 2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2차 투표(1.5배수) : 11월 9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후보의 선정

1. 장로,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하여
선출인원(장로 15인, 안수집사 15인)의 2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5배수로 실시한다.

▣ 투표장소

봉사관 1층 및 지하 1층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영락교회 선거집행위원회 위원장 서 상 현 장로

황금빛 들판 위 꿀잠...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



낮잠

La Mérienne

1889~1890년 제작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반 고흐는 여름 들판을 배경으로, 건초 더미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는 농부 부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시골의 추수 풍경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밀밭과 따뜻한 밀짚의 노란색, 옷과 소 수레 사이의 밝은 파랑·보라·노랑·주황색의 선명한 대비, 그리고 푸른 하늘과 건초 더미의 그림자가 어우러져, 삶의 고단함과 그 속에 깃든 평안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상기시킵니다. 황금빛 들판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하신 말씀처럼 은혜로 충만한 삶의 터전이며, 땀 흘려 일한 뒤 허락하신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하신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 고흐의 봄 끝에 담긴 이 평온한 한낮의 풍경은, 우리의 일과 쉼이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의미와 위로를 얻는다는 복음을 고요히 전하는 듯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2025년 10월호 통권 618호

발행 2025. 10. 1.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박지운 /편집인 김주현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시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현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빌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



월간 「만남」 e-Book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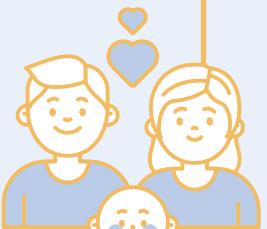
새아기



새가정



임희수, 박예림 가정



- ❶ 최다운(최호일, 박정윤 가정)
- ❷ 양이례(양동욱, 이은솔 가정)
- ❸ 노혜운(노성훈, 구윤 가정)
- ❹ 오세은(오은섭, 박복희 가정)
- ❺ 임윤찬(임준성, 최우희 가정)



낮잠 (La Méridiennne, 1889~1890)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